

한국 전통 종교사상과 기독교사상

— 무속종교를 중심으로 —

김 영 한*

목 차

- 머리말
1. 샤머니즘의 특성
- (1) 신령 사상
- (2) 저승 사상
- (3) 기복 사상
- (4) 기도와 지성 사상
- (5) 현세 사상
- (6) 숙명 사상
- (7) 낙천 사상과 찬가
2. 샤머니즘의 기독교적 접촉성
- (1) 하느님 또는 하나님 사상
- (2) 내세 사상
- (3) 축복 사상
- (4) 영성 사상
- (5) 차안 사상
- (6) 초월적 힘과 의지사상
- (7) 낙원 체험과 신찬미
- (8) 시련이나 죽음을 통한 성화 사상
3. 샤머니즘의 변혁주의적 이해
- (1) 범신론 아닌 삼위일체론
- (2) 신령의 세계 아닌 하나님의 나라
- (3) 주술적 종교 아닌 인격적 종교
- (4) 현세적 기복 영성과 세계내적 영성
- (5) 혼합주의 아닌 윤리적 변혁정신
- (6) 자연의 맹목적 의지 아닌 인격적 하나님의 역사섭리
- (7) 신화적 낙천주의와 변혁적인 현실주의
- (8) 신화적 구원과 역사적 구원
- 맺는말
- 한국 기독교의 방향—포용적 변혁주의 기독교

머리말

한국전통종교의 이해는 샤머니즘의 이해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샤머니즘은 한

*인문대학 교양과 교수

국의 고유종교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 외래종교들인 불교, 도교, 유교, 특히 신유교는 이 무속종교의 意識과 토양에서 수용되었다. 그리하여 샤머니즘과 이들 종교들 사이에는 전혀 갈등이 없었다. 무속종교의 신앙은 오히려 이들 전통적 외래종교들에 침투하였다.

이미 중국의 불교, 도교, 유교등은 한국으로 전래되기 전 이미 샤머니즘의 특성인 조상숭배, 신령숭배, 諸神숭배, 秘敎라는 무속신앙의 요소들을 수용하였고 한국으로 전래되었다.¹⁾ 따라서 한국에 전래된 전통적인 불교, 도교, 유교는 이러한 신령숭배의 의식과 풍토 속에서 형성되었다. 샤머니즘 자신은 그 자체의 교의학이나 신앙론을 가지지 않았고 진정한 종교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샤머니즘은 어느 종교든지 수용하여 혼합주의(Synkretismus)를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전통종교인 불교, 도교, 유교 등은 샤머니즘과 결합한 혼합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적 혼합주의 종교는 이미 그 자체 속에 종교다원주의 사고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혼합주의 종교는 다른 종교들을 신에 이르는 다양한 길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샤머니즘은 한때 동북 아시아 변경지대의 만주 통구스족의 유사신앙 행위로 간주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학계는 샤머니즘이 인류가 초창기에 보편적으로 경험한 종교라는 것이다. 따라서 샤머니즘이야말로 단지 한국의 전통종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의 고대인이 체험한 종교이다.

그 대표적인 저서가 금세기의 최대의 종교학자 엘리아데(Mircea Eliade)의 유명한 저서 [영원한 회귀의 신화](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이다.²⁾

이런 의미에서 한국무속신앙을 기독교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한국기독교를 이해하는 선이해가 될 수 있다.

1) Dong Joo Lee, Koreanischer Synkretismus und die Vereinigungskirche, F. U. T. Muellerbader, Filderstadt 1991, S. 125

2) Mircea Eliade, Le Mythe de l'éternel retour : archetypes et repetition by Librairie Gallimard, NRF, Paris, 1949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Trans. by W.R. Trask, Princeton University Press, 9th edition, 1991, preface Xiii-XV

1. 샤마니즘의 특성

(1) 신령 사상

무속신앙은 만물 안에는 정령이 있다고 보고 이 정령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다. 이 신령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 천지 간에는 무수한 선령과 악령들이 가득차 있다. 제령들 속에는 죽은 자들의 영도 있다고 믿는다. 귀신은 이러한 선한 영과 악한 영들을 포괄한다.³⁾ 鬼는 죽은 영혼(Totengeister)이요 神은 이승의 사전에 힘을 행사하는 자연영(Naturgeister)을 말한다.⁴⁾ 이들 제령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결혼도 하고 음식도 먹는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죽은 사람의 영을 위해 제사상을 채리기도 하고 처녀귀신과 총각귀신을 위해 영혼결혼을 시키기도 한다.

한국 무속의 대표적인 神位가 천신이다. 天神은 곧 하느님이다. 민중들에게는 하느님은 너무나도 지고하고 먼 존재였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아들인 단군은 산신이 되어 민중들과 가까이 된다. 그리고 더욱 가까이는 집집마다 대청에 천신인 成造를 모시게 된다. 산신, 조상신, 성조는 천신의 계보에 속하는 신위들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마을과 개인을 수호하고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천신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천신이 강림한 것이 山神이요 이 신위는 조상이 묻힌 산의 신이다. 산신은 단순히 수호와 축복만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생산을 관장하는 農神이다. 따라서 산신은 生産신이기도 하다. 이 생산신은 곧 穀神이다.

제주도의 샤만인 신방(神傍)에 의하면 일만팔천의 신령들이 존재한다.⁵⁾ 무속신앙은 다령숭배요 다신종교이다. 한국의 무속신은 명칭상 273종이 달하고 있다. 그중에 자연신이 21계통, 인신(人神)이 11계통, 기타 1계통으로 33계통이 있다.⁶⁾

신령들은 자연과 인생의 운수를 조절하며 화를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 초자

3) Frits Vos, Die Religionen Koreas, Kohlhammer, Stuttgart, Berlin, Koeln, Mainz 1977, S. 73

4) v. Strauss, Laotse's Tao Te King, Leipzig 1870, s. 268

5) 진성린, 남국의 신화, 아림출판사, 1965, 161-170쪽

6)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285쪽

연적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경사굿이나 재수굿이 기본형태에서 모시는 신은 부정, 불사, 산신, 성주, 대감, 별상, 호구, 帝釋, 창부, 조상 등이다. 이 가운데 3大家宅神이 대감, 제석(칠성), 成造(성주)이다.⁷⁾ 굿의 12거리에는 이 3大主神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成造(성주)는 天神으로 주인의 수호신이요 가택의 주재신으로 대청마루에 모신다.

大監은 地神이며 무속에서는 가택신의 하나로 財福신으로 신봉된다. 제석신은 桓因제석에서 유래한 천신 곧 하느님의 별칭으로 자손의 수호신으로 안방이나 광에 모신다. 도교의 영향 아래 제석이 때로는 칠성으로도 불리운다. 칠성님은 자손의 축복과 수명연장을 관장하는 신이다.⁸⁾ 이 삼대주신은 하늘, 땅, 인간 삼계를 주관하는 主神이다.

독성님은 소원을 속히 성취해주는 신이다. 지노귀 굿에서 모시는 신은 뜯대왕, 중디, 말명, 사제 등이고 마지막거리 굿에서는 잡신을 풀어 먹인다. 이것은 굿에 따라 들어온 잡신을 제거하는 주술적인 의례이다.

무속신앙은 세가지 신의 범주를 말한다. 신의 세계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신, 부정한 상태에 있는 부정한 신, 불행하게 죽은 사람이 영혼인 잡신이다.⁹⁾

(2) 저승 사상

한국에서 “저승”이라는 말은 불교이전에 샤머니즘에서 전래된 것이다.¹⁰⁾ 이러한 현실세계인 이승과 영혼의 세계인 저승은 엄연히 분리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생각한다. 인생은 출생으로부터 저승에 이르기 까지 무한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본다. 인간은 이승에서의 생활을 저승에서 연장하는 과정을 거친다.¹¹⁾ 죽은 영혼은 자식들의 제사를 받음으로써 보다 나은 세계에 갈 수 있다. “죽어서 굿을 받아 먹는다”

7) Frits Vos, op.cit. pp.83-85

8) 유동식, 무교의 역사와 구조, 1985, 연세대학교, 317쪽

9) 최길성, 『무속에 나타난 종교의식』, 한국사상의 심층연구, 1986, 우석, 46-48쪽

10) Clark, op.cit., p. 218

11) 최길성, 『무속에 나타난 종교의식』, 한국사상의 심층연구, 우석, 1990, 43쪽

라는 표현은 죽은 이가 산 사람의 힘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죽은 영혼이 점점 좋은 세계에 들어갈수록 자손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저승에서 선조는 후손을 도와고 이승에서 후손은 선조를 봉양한다.

巫敎에서는 저승만 있을 뿐이지 천당과 극락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승은 단지 죽은 영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이승과 저승에는 갓 죽은 망령이 거처하는 중간세계가 있다.¹²⁾ 사람이 죽어서 곧장 저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은 靈山이나 원혼들은 이승에서 산 사람들의 주변을 돌고 있다. 이들은 때때로 산 사람들에게 재액을 가져온다. 그래서 망령제를 해서 망령들의 원한을 풀어 저승으로 보내어야 한다.

(3) 기복 사상

샤머니즘은 세계를 창조한 主神인 하느님은 이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人事에는 간섭하지 않고 부하인 제령들에게 인사를 관리하게 한다고 믿었다. 인간에게 질병, 사고, 재해 등 액운이 다가올 때 이들 제 신령들의 노여움 때문으로 본다.¹³⁾ 이들을 달래기 위하여 굿(巫儀)이나 제사를 드린다.

굿은 세가지 유형으로 발전되었다. 축복과 수호를 비는 재수 굿과 동네 굿을 하는 기복제, 액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치고자 병굿을 하는 치병제, 亡者의 살풀이를 하고 저승에 보내는 씨름굿이나 진오기 굿을 하는 死靈제이다.

이러한 제사는 기복과 양재(禳災)의 두기능을 갖는다. 기복이란 신령에게 제사하고 복을 비는 것이다. 기복신사(神事)에는 기우제, 기은, 기자, 성황제, 별신사, 안택신제 등이 있다. 양재란 악령구신을 제거하기 위한 기제나 금압(禁壓)이다. 여기에는 치병기도, 재해액운을 기도로써 물리치는 액제(厄除)기도, 영력을 이용해 재화를 가져오는 무주(巫呪), 신부(神簿)를 붙이거나 주문을 외워서 악령을 제거하는 금압등이 있다.

12) 유동식, 상계서, 89쪽

13) F. Amman, Die religioese Bewegung in Korea, in:IMM, 53Jg. 1911, S. 148f.

부락제에서는 소지(燒紙)와 음복을 절정으로한다. 신의 임재와 신인융합을 축하하며 즐기는 음복연(飲福宴)이 있다.¹⁴⁾ 신령과 더불어 식사를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을 마시는 음복이 된다. 무교는 신인이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에는 어떠한 재액도 침범치 못하며 인간은 신령의 힘을 빌려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무교적 가치체계란 壽福과 축복과 평안이다. 부자되어 장수하며 평안히 살자는 것이 무교적 복의 내용이다.¹⁵⁾

(4) 기도와 지성 사상

무교는 소원성취를 위하여 신령들에게 기도한다. 대표적인 것이 칠성기도, 산신기도, 독성기도이다. 七星기도는 자식을 낳기위해 그리고 수명의 연장을 위해 드린다. 山神기도는 사업성취와 번창에 집중되어 있다. 獨聖기도는 막연한 소원성취를 위하여 드린다. 이처럼 무교적 기도는 수명을 늘리고, 재물을 늘리고, 병을 고치고 화를 면하기 위해 드린다.

특별히 祈雨祭를 드릴 때는 신앙과 정성을 다바쳐 기도한다. 사람들은 한우(旱雨)는 천지신명과 산천제신이 좌우하므로, 가뭄은 신령이 내리는 재앙으로 믿었다. 그러므로 기우제는 근신할 뿐만 아니라 신령의 뜻을 알고 신령들과 교제하여 그들의 뜻을 알고 자비를 청하여야 했다.¹⁶⁾ 991년 가뭄이 심할 때 成宗은 정곡(正殿)을 피하고 상선(常膳)을 감하며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며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¹⁷⁾

무당이 신령을 초청할 때 부르는 축원무가에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천신령 부군니들 약소한 정성받으시와”

라고 정성에 관해 언급하고 가무하고 공수줄 때도 신령의 정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14) 유동식, “부락제”,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257쪽

15) 유동식, “무교적 세계관”, 민족종교와 한국문화, 1978, 현대사상사, 83쪽

16)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127쪽

17) 高麗史 제 54권, 志卷 8, 五行 2, 成宗 10년

“약소한 정성 태산같이 받고 잘 도와 보니 염려말고 걱정 말라신다.”¹⁸⁾

신령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드리는 자의 至誠이 요청되고 있다.

기은제(祈恩祭)는 국가의 安寧과 다상(多祥)을 산천(山川) 성황(城隍)에게 비는 국가적인 기복제(祈福祭)이었다.

이것은 별기은(別祈恩)이라하여 고려말기부터 성행했고 이조 때에도 계승되었다. 中宗 때 기은제에는 왕의 장수연명을 빌었고 의장(儀仗)을 엄히하고 차우무격(倡優巫覡)을 거느리고 전당(殿堂)에서 복을 빌기도 하고 무녀들을 이끌고 산천이나 성황에서 복을 빌었다.¹⁹⁾

(5) 현세 사상

무속신앙은 현실의 복된 삶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어떻게 하면 재액(災厄)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안락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가 하는가이다.

신령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참으로 신령을 공경하는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령의 축복에 의존하여 현실의 복락을 누리는 데 있었다.

무속적 제례는 높은 정신적 이상이나 내세적 구원의 이상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 그대로의 생활상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신령의 도움을 빌려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소원성취로서 행운, 초복, 제재, 치병 등의 현실적인 생활사의 문제로 집약된다.”²⁰⁾

저승이 이승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승의 연장으로 이해되는 것도 무속신앙의 현실 이익적인 세계관에 입각하고 있다.

재수 굿은 재물의 운수를 위해 신령에게 드리는 경제성을 갖는 투자이다. 굿에 들이는 비용이 클수록 이익이 크다고 믿는다.

“돈은 생활을 즐기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저승가는 데도, 신에게 복을

18)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298쪽

19) 中宗實錄, 7년 6월, 9년 10월, 11년 2월,

20)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287쪽

비는 데도 여러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²¹⁾

무속신앙은 돈이나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무한정 재물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

재숫 곳은 이러한 무속신앙의 현세 요행사상을 나타내는 단적 예이다.

죽은 영을 저승으로 보내려는 死靈祭의 “진오기 굿”이나 “시름 굿” 자체도 저승에 관심이 있거나 죽은 자의 명복에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의 망령이 후손들에게 후환을 자저울까바 달래 저승으로 보내고 후손들이 이승에서 평안히 살자는 것이다.²²⁾

이처럼 무교의 가치세계는 이승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세적이다. 무교적 가치관에는 내세적이거나 영적이거나 미래지향적 비전이 없다.

(6) 속명 사상

무교는 인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창조하기 보다는 모든 인간사는 신령들이 정해진 축복과 길흉을 따라서 진행된다고 보았다.

하계제영(下界諸靈)에게 드리는 무제(巫祭)는 불안, 질병, 재악, 불운 등이 닥쳐왔을 때, 하계의 제영들의 소행이라고 믿고 이 諸靈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그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²³⁾

무속신앙은 초월적 힘에 의하여 자연계와 인간의 생사화복과 진로가 좌우되고 있다는 운명적인 세계관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인간은 신령이 정해놓은 이 운명에 단순히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초월적인 힘이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굿이었다.

인간이 장수하고 재물을 얻고 출세하고 공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령의 노여움을 풀게하고 복을 가져다 주도록 굿을 해야 하였다.

21) 최길성, 상계서, 43쪽

22) 유동식, 상계서, 84쪽

23) Sergei M. Shirokogoroff, *Psychomental Complex of the Tungus*, London & Shanghai, 1935, pp.304-6.

무교는 노래와 춤으로서 신령과 교제하여 신령으로 하여금 자연과 인간의 운명을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除禍招福하는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신령과 교제하는 목적은 신령이 인간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교의 속명사상은 나중에 사주팔자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복술예언(占卜豫言) 사상과 풍수지리가 인생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믿는 풍수참위(風水讖緯) 사상과 더불어 민간신앙의 속명론 사상의 근거를 이룬다.²⁴⁾

(7) 낙천 사상과 찬가

곳은 다가온 액운을 물리치고 축복을 받도록 신령에게 기원한다. 이에 대해 신으로부터 액운이 물러가고 축복이 임할 것을 약속받는 것이 공수(神託)이다. 인간만사를 지배하는 신령의 초월적 힘이 액운을 물리치고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므로 소원성취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준 현실은 이제 신령의 신탁에 의하여 낙원으로 변한다.

이제 인간은 액운의 현실에 대하여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액운의 현실은 극복되고 이미 낙원의 일부가 실현되고 있다.

신령의 은혜와 덕으로 모든 것이 충족된 현재를 맞이하여 인간은 이제 신령의 덕을 찬미하고 신령과 더불어 즐길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무속인간들은 神歌, 노래 가락, 타령을 부른다. 그 예가 낙원찬가이다.²⁵⁾

(8) 신화적 구원 사상

무교전체는 신화적 구원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① 家宅神 성조(成造)의 본풀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천하궁(天下宮)의 복구를 하기 위해 地下宮의 황우양(黃羽陽)이 부인을 두고 떠난다. 소진랑(沼津郎)이 미인이요 슬기로운 황우양의 부인을 강압하여 처로 삼는다. 그러나 황우양의 부인은

24) 유동식, 민속종교와 한국문화, 277쪽

25) 赤松, 秋葉, 朝鮮巫教 研究, 下卷, 大阪屋號書店, 東京, 1937, 80-86쪽

지혜롭게 정조를 지킨다. 황우양이 되돌아와 소진랑을 처벌하고 부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그는 成造되고 부인은 地神된다.

이 成造풀이 서사무가(敍事巫歌)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소진랑이 때문에 황우양은 부인을 잃고 헤어지게 되나 부인의 슬기로 부인이 끌려가기 전 써논 글을 보고 소진원에 와서 부인을 구한다. 이 줄거리는 헤어진 부부가 자기들에게 닥친 역경과 악을 물리치고 재결합하여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 집안을 평안케하는 가택신(家宅神)이 되었다는 신화적 구원을 말해주고 있다.

② 바리공주 무가는 다음의 줄거리다.

대왕양전하(大王兩殿下)가 7공주를 계속 나온 후 제 일곱째 공주 바리를 바다에 버린다. 대왕양전하는 아기를 내다 버린 죄로 병이 든다. 병이 낫기 위하여는 버린 아기를 데리다가 無上神의 약영수(藥靈水)를 구해 먹어야 한다. 예대신(禮大臣)이 바리공주를 황천강(黃泉江)을 넘어 데리고 온다. 바리공주는 부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시 저승으로 가서 무상신선(無上神仙)의 약영수를 구해서 이미 죽어 나가는 왕의 상여를 만나 상여를 멈추고 관 뚜껑을 열고 아버지를 살린다. 바리공주는 萬神 무당의 몸주가 되고 巫祖神이 되었다.

바리공주 무가의 줄거리는 부모로부터 날 때부터 버림받아 죽어 저승에서 사나 부모의 병 때문에 이승으로 나아가 다시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다시 저승로 가서 藥靈水를 구해 부모를 구한 후 자신은 巫祖神이 된다는 신화적 구원을 말하고 있다.

2. 샤마니즘의 기독교적 접촉점

(1) 하느님 또는 하나님 사상

무속신앙은 많은 정령들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최고의 신인 하느님이 있다고 믿었다. 하느님은 잡다한 귀신을 초월한 신으로서 최고의 지배자이다.

하느님은 무속의 최고 신에 대한 명칭으로 한 큰 분(The One Great One)이다.²⁶⁾

26) C. A. Clark, Religions of Old Korea, CLSK, 1961, p.196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는 한 분이다. 하늘(Himmel)은 신인동형적으로 인격적으로 호칭되었다. 하늘은 하느님과 동일시 되었다.²⁷⁾ 그는 전 영계를 지배하는 최고 신이다. 하느님은 하나님, 하늘님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하늘의 영인 천주로, 하나의님, 유일지대한 신인 하나님으로 이해되었다.²⁸⁾

하느님은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신으로서 비를 주시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추수의 열매를 준다. 기우제를 드리는 대상은 바로 한국 샤머니즘의 최고의 신인 하느님이었다.

이러한 무속신앙의 하느님 개념은 성경적이고 기독교적 여호와를 나타내는 데 개념적 동의어가 된다. 무속신앙에서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인 하느님은 구약 성경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과 형식적으로 상응한다.

최초의 성경번역자 이수정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일본성경을 본보기로 삼았다.²⁹⁾ 그리하여 그는 성경번역에 있어서 기독교의 신 개념을 다신론적 개념인 神으로 번역했다. 이러한 번역은 한자(漢字)의 신개념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성경의 신이 아직도 무속신앙의 하느님과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런데 만주에서 일하던 선교사 로스(Ross)는 성경번역에 있어서 중국성경의 신 개념인 上帝를 순수 한국어인 하나님으로 번역했다. 1938년의 개역번역은 하나님이란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다. 1977년 공동번역은 성경의 하나님을 다시 하느님으로 번역했다. 1993년 표준새번역은 다시 신에 대해 하나님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번역에 있어서 하나님 내지 하느님은 무속신앙을 가진 민중들에게 기독교적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데 문화적인 동의어 구실을 하고 있다. 선교사 게일(James S. Gale)은 한국인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이 분은 “한 큰 분”(The One Great One)이라고 말하고 있다.³⁰⁾

27) Frits Vos, Die Religionen Koreas, Kohlhammer, 1977, S.59-60

28) J. S. Gale, Korea in Transition, Board of Foreign Missions, Presbyterian Church, New York, 1909, p.78

29) James S. Gale, op. cit., p.78ff.

30) J. S. Gale, op. cit., p.78.

헐버트(Hulbert)는 한국인이 가진 하나님 관념은 우주의 최고의 지배자이며 잡다한 귀신을 초월한 신으로 유대교의 에호바와 일치한다고 본다.³¹⁾

성서공회 총무였던 선교사 閔休(Hugh Miller)는 아빙돈 단권주석의 “조선어 성경의 유래”라는 항목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순수한 조선말로서 인격적 실재에 대하여 호칭했다고 본다. 이 하나님이란 말은 조선어 만큼이나 오랜 말로서 포학, 불결의 관념에 물들어 본 일이 없는 성결한 말이다. 대궐에 앉은 제왕이나 초가에 사는 농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도움과 복을 빌 때 하늘에 계시는 인격자를 생각했다는 것이다.³²⁾

한국개신교가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고 또 이 개념이 유일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 것은 획기적인 공헌이다.³³⁾

(2) 내세 사상

① 무속신앙은 우주를 삼층 구조를 본다. 상계(天上), 중계(地上), 하계(地下)이다. 이들 3계의 우주층에는 각기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천상이나 지하에도 지상과 똑 같은 세상이 있다고 믿는다. 상계는 광명한 천상세계이며 우주의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天神과 日神, 月神, 星神과 그 侍從神 등 신령들의 거처이다. 중계는 인간과 생물이 살고 山神을 비롯한 일반 자연신이 사는 이 세상이다. 하계는 인간의 死靈을 지배하는 명부신(冥府神)들과 악령이 사는 지옥이다.³⁴⁾

이러한 삼층세계관은 신약성서의 세계관과 동일하다. 이러한 무속의 우주관은 신약성서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선이해의 구실을 한다. 현대의 신약성서학자 볼트만은 신약성서의 세계상을 신화적 세계상으로 보고 있다. 위에는 하늘, 아래는 지옥, 그 중간에는 하늘의 힘과 악마의 힘의 투쟁터로서 지상이다.³⁵⁾ 여기서 볼트만은 이

31) 조지훈, 현대인 사상강좌 4, 298쪽

32) 아빙돈 단권주석 53쪽

33) 윤성범, 『한국의 하나님 사상』, 기독교와 한국사상, 1964, 대한기독교서회, 70쪽

34) 김태곤, 『제 5장 무속의 원형적 사고체계』,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5, 297쪽

35) 김영한, 바르트에서 볼트만까지, 1993년 13판, 135-137쪽, R. Bultmann, Neues Testament und Mythologie, in : Kerygma und Mythos I, Hamburg 1948, S. 16ff.

신화적인 세계관인 3층의 세계상이 현대인들에게는 타당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반해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3층의 세계상이 현대인들에게도 타당하다고 본다.³⁶⁾

특히 독일 신학자 쾨벌러(Adolf Koeberle)는 “성서적 실재론”(Biblischer Realismus)을 주장하고 있다. 인간이란 천사와 악마 사이의 투쟁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는 로마서 8장을 예로 든다. “여기서 바울은 천사와 악마의 세계를 보고 있다. 그리고 악마의 영광은 세계통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에 의하여 퇴색되며 악마의 경악성은 퇴각해야만 한다”.

바울은 또 예수의 말씀을 예로 든다. “역사과정으로 초자연적 힘들의 유입은 예수의 말씀에서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신약성서의 보고에 따르면 천사는 계시의 사건이 형상적으로 보여지는 곳이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타난다.”³⁷⁾

② 무교는 내세再生관을 가지고 있다. 죽은 망령들을 넘두리하여 地府王의 사자들이 와서 그 혼을 잡아가게 한다. “두번 죽어 저승으로 가게 된다”는 관념이다. 그리하여 二重의 사망을 통해 죽음에서 삶으로의 승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죽음은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삶의 시작이다. 첫 죽음은 삶의 미완성이다. 그리하여 오구 곳에서 망령의 원한을 풀고 죽음을 완성하게 하여 死者로 하여금 그를 다시 잡아가게 한다. 죽음을 다시 죽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敍事巫歌 바리공주에서 바리떼기는 죽은 부모의 회생을 위해 저승을 두번 왕래해야 했다.³⁸⁾ 참죽음에서 저승으로 가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내세에서의 새로운 삶과의 동의어가 된다.

예수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청한다. 예수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6) Adolf Koeberle, *Biblischer Realismus*, Wuppertal 1972, 특히 1. Der Mensch zwischen Engel und Daemon S. 5-19

37) 상계서, 9쪽

38) 유동식, 상계서, 87-89쪽

(눅 23, 43)라고 사후의 낙원에서의 삶을 약속하고 있다.

인생이란 이생에서 출생해서 저승으로의 무한한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무속신앙의 사고는 내세를 인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독교 사상과의 접촉점이 된다.

(3) 축복 사상

산천제, 조상제, 기우제로 행해진 고대 한국인들의 신앙은 天地와 山川에 제사하였다. 산천은 천지신명을 뜻하는 것이요 그 대표적 존재가 山神과 龍神이다. 산신은 하강한 천신을 상징하고 龍神은 地母產神을 상징하였다. 천지산천에 제사지내는 것은 이 천지신명이 풍우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섭리하는 존재로 믿었기 때문이다. 선조 6년 1089년 “천지 산천에게 제사를 지내고 복을 빌었다”. 명종 15년 1185년 “백마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태자의 후사 있기를 빌었다”. 공민왕 5년 12월 적도들이 일어나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도 중외산천신묘(中外山川神廟)에게 도움을 빌었다. 인종 6년 1128년 왕이 병들었을 때에도 백관은 묘사(廟社)와 불사(佛祠), 도우(道宇)뿐만 아니라 산천에 병낫기를 기도하였다.

무당은 신령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중개자이다. 열두거리의 기복제에서 역신(疫神)과 수호신을 모시는 거리들은 재액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요 財福과 壽福과 안녕을 주관하는 3대巫神을 모시는 거리들은 적극적인 축복을 구하는 의식이다.

축복의 내용은 재복과 수명과 평안을 얻는 데 있다. 무교는 이 3대복을 주관하는 신들을 가택신(家宅神)으로 모시고 있다. 천지신명에게 제사지내고 축복을 받는 무교사상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의 축복을 받는 기독교 축복사상의 동의어이다. 모든 인간의 종교체험의 원천은 무속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 참된 신을 알지 못하는 시대 우리 조상들은 천지신명에게 그들의 종교적 소원을 표현하고 위로와 축복받기를 구하였다. 이러한 무속의 축복사상은 구약성서의 축복사상을 이해하는 해석학적 선이해가 된다.

(4) 영성 사상

기우제를 드림에 있어서 근신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며 기우제를 드리며 신령과 영교하는 무격(巫覡)을 청하여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무교가 가지고 있는 무속적 영성이다. 이조 세종시대의 산천제의식(山川祭儀式)은 제계(齋戒), 진설(陳設), 행례(行禮) 라는 의식절차를 갖는다.

제계는 제사 3일 전부터 행하는 마음과 행동의 근신절차요, 진설은 제사 하루전 행하는 단(壇), 제기(祭器), 실찬구(實饌具) 준비절차이며, 행례는 제사당일 헌작(獻酌) 음복(飲福)을 통해 신령과 교제하는 의식이다. 집사관들은 제사 3일 전부터 음식을 가려 먹고, 조상문병을 금하고 음악을 듣지 않고 형쇄(刑殺)문서에 관여하지 않고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³⁹⁾

이러한 무속적 영성은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께 질병의 치유와 세속적 성공을 위하여 그리고 자연의 재해시 이의 극복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구약성서적 영성에 형식적으로 상응한다. 엘리야 선지는 이스라엘의 종교타락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가뭄을 그치고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 얼굴을 무릎에 대고 일곱번 하나님께 기도하여 큰 비가 내리게 한다(왕상 18, 41-46).

따라서 무속신앙의 기도와 지성(至誠)은 기독교 사상의 인격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정성의 동의어가 된다.

(5) 차안 사상

이승에서 충만한 삶을 추구한다는 무속신앙의 차안사상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고자하는 구약성서적 차안사상의 접촉점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래 오래 풍성하게 살아야 한다. 망령의 넋두리처럼 언제나 죽음은 억울하고 한스러운 것이다. 저승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오래 살자는것이 무교의 소원이다.

39) 유동식, 상계서, 176쪽

무교의 死靈祭에서 죽은 자의 혼을 되돌아오게 해서 죽은 원한을 풀어준다. 여기서 원한이란 죽음자체에 대한 원한이 중심을 이룬다. 사람이란 삶으로 본다. 죽음이란 언제나 억울하고 한스러운 것이다. 닥두리는 못다 산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다. 여기에 이승이라는 차안의 삶을 강조하는 무교의 사상이 있다. 초혼제에서도 초혼을 하는 것은 죽은 혼이 바로 저승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은 영은 자기 시체를 방에 누어놓고 집안 식구들이 모여 앉아 탄식하고 슬퍼하는 광경을 보고 있다. 갓 죽은 상문(喪門)이나 영산(靈山)은 이승을 방황하며 산 사람들 주변에서 사람들의 거동들을 보고 있다. 망령이 방황하는 것은 못다 산 원한 때문이다.

여기서도 이승을 차마 떠나지 않으려는 죽은 혼의 차안집착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사령제를 지내는 이유도 죽은 이의 운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 남아 있는 사람들의 제화초복(除禍招福)에 관심을 가지고 굿을 통해 죽은 영의 명조(冥助)를 비는 것도 차안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무교의 사상이다.

이러한 무교의 차안사상은 이 세상의 삶을 중요시하는 기독교적 사상의 동의어이다. 이사야서는 병들어 죽게된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사 38, 2-3). 이에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어주는 여호와의 응답이 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 오년을 더하고...”(사 38, 5).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성이 나타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을 들어가고 여년을 빼앗기게 되었고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오리니 생존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사 38, 10-11). 히스기야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오직 산 자만이 주를 찬양할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음부가 주께 사례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사 38, 18-19).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가(巫歌)가 죽음을 원통하게

생각하고 이승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는 것에 탁월히 상응하고 있다.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죽었을 때 엘리야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를 위하여 “그 아이 위에 세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기도하여 그 아이의 혼을 돌아오게 한다(왕상 17, 17-24). 여기에 삶 자체를 중요시하는 차안 사상이 있다.

삶과 현실자체를 중요시하는 사상은 예수가 죽은 나사로 재생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두 누나와 주변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요 11, 28-44). 여기서도 죽음의 한스러움을 극복하시고자 하시는 예수의 현세 삶 인정의 사상이 나타나 있다.

현세와 세상에 대한 인정은 예수의 계세마네 기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 17, 15). 기독교는 이 세상으로 부터의 도피가 아니다. 단지 이 세상의 악으로 부터 구별되는 사상이다.

예수는 다음같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피력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요 17, 18).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곳이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를 보내신 곳이다. 여기에 기독교적 현실인정 사상이 있다.

(6) 초월적 힘과 의지 사상

始祖신화는 하늘과 땅의 결합 또는 신과 인간의 결합에서 새로운 생명인 始祖가 탄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단군신화는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天神족인 환웅과 地神족의 대표인 고마족의 여성의 결합으로 태어났다고 믿는다.⁴⁰⁾ 이러한 시조신화는 초월적 힘과 의지를 믿는 신앙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초월적 힘과 의지에 대한 사상은 무속의 신탁인 공수의 메세지에서 나타난다. 신령은 인간을 책망한다.

40) 최남선, 불함문화론(육당연구), 148쪽

“너의 정성 굽어보니 소소하고 약소하다. 이것만 도와주시고 이것만 생겨 주셨느냐 섭섭하고 섭섭하다”.

그러나 신령은 계속 축복해주기를 약속한다.

“약소한 너의 정성 태산같이 받고 잘 도와 보니 염려말고 걱정 말라신다”.⁴¹⁾ 이러한 공수의 메시지는 인간의 존재근거와 삶의 성공실패가 자기나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초월적인 신령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사가 신령의 초자연적 지배 하에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신령의 도움으로써만 인간은 세상사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무교에서 交靈입신의 방법은 음주가무이다. 음주기무는 脫我境으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신과 하나가 된다. 그리하여 신의 영력에 의하여 욕구를 실현하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한다. 인간의 의지와 힘을 넘어선 초월적 신의 힘을 빌린다는 무교의 사상은 신령이 모든 현상계를 창조하고 지배한다는 신앙을 배경으로 갖고 있다. 이러한 무교의 사상은 인간의 힘과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입각하여 행하는 성서적 기독교 세계관의 동의어가 된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람의 부르심은 그의 순례자의 삶이 인간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자기계시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입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 12, 1-2).

아브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의 순례자의 삶을 시작한다. 그의 삶은 전적으로 초월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 이러한 아브람의 신현체험은 무속적 신령체험에 형식적으로 상응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무속적 공수는 제례드리는 자의 삶과 실존의 현상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정성이 약소하다는 것을 책망하나 약소한 것 까지도 태산으로 간주하고 축복해 준다고 말한다. 여기에 무속신앙의 현 상태 유지와 보수적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신령의 공수를 받으나 받는 자의 삶과 실존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

41) 赤松, 秋葉, 朝鮮巫俗 研究 下卷, 77쪽

이에 대해 구약성서적 계시는 받는 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아브람의 신현체험에 있어서 아브람은 여태까지의 친척 부모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야 했다. 그 이유는 그의 가문이 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전통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여태까지의 삶과 관습으로 부터의 질적인 단절과 새로운 결단과 삶이 요구된다. 기독교적 신현에는 해당하는 자의 삶과 실존의 변화 즉 聖化가 반드시 따르고 있다.

열왕기하 5장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 일곱번 몸을 담가 문둥병을 깨끗이 고침을 받았을 때 나아만의 신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나아와 감사드리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왕하 5, 15).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왕하 5, 17).

나아만의 신유체험은 단순한 신체적 치유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삶과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본다. 여기에 기독교적 신현이 무속적 공수와 다른 점이 있다.

(7) 낙원 체험과 신찬미

무속종교에서는 신령의 은덕을 구하는 곳에 대하여 응답해주는 신령의 공수를 받으므로 불안한 세상은 낙원으로 변한다.

다음은 山神을 찬양하는 노래가락의 일부이다.

“길아래 용마가오 용마등에 신선가오 걸질르고 걸질러라

가는 풍류 걸질러라. 가다가 꽃밭을 만나거든 놀고 갈가”

신령들이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강림하여 재액을 물리치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상 이 세상은 원초적인 낙원으로 복귀했다.

“이제는 세속과 신성 사이를 가로막는 장막이 없어졌다. 신화적인 세계가 전개된 것이다. 신령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에는 다리가 놓여 졌고 신령과 인간 사이에는 화의(和宜)가 이루어 졌다”.⁴²⁾

42) 유동식, 『巫覡신앙과 그 구조적 성격』, 무교의 역사와 구조, 331쪽

곳을 통하여 입신하여 황홀경 속에서 신령이 이 세상에 강림하고 인간이 드리는 슬잔은 신령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화의가 선언되는 새로운 세계이다. 신령과 인간이 화의되고 직접 교제하는 현재 인간은 신령의 축복 아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여기서 신화적 낙원이 이루어 진다.⁴³⁾

이러한 무속적 낙원 체험은 기독교적 천국체험에 형식적으로 상응하고 있다. 낙원체험과 신찬미는 역동적 동의어이다.

출애굽하면서 홍해에서 바다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추격하던 에집트의 군대가 바다에서 함몰하는 구원을 체험한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적과 기사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소고치며 다음같이 노래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출 15, 21)

시편기자는 다음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라. 주께서 내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시 116, 7-9). 시편기자는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1898년 미국의 감리교 신자인 버틀러(C.F. Butler)가 작곡한 “내 영혼이 은총 입어”(Where Jesus is, 'tis Heaven)라는 찬송가는 중생한 신자의 지상에서의 천국 체험을 생동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한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포하고 있다.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

43) 유동식, 『무격신앙과 그 구조적 특성』, 무교의 역사와 구조, 333쪽

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하느니라”(롬 5, 11).

이러한 낙원 체험과 화해는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 간에 형식적으로 상응하는 역동적 동의어이다.

그러나 양자의 구조적인 차이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무속적 낙원과 신령과의 和誼는 굿푸리를 통하여 주술적으로 이루어지나 기독교적 천국과 신과의 화해는 주술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자에는 윤리성과 성화가 없으나 후자에는 윤리성과 성화가 반드시 동반된다.

(8) 시련이나 죽음을 통한 성화 사상

본풀이 무속의 신화는 시련이나 죽음을 통한 재창조를 말하고 있다.

처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황우약은 神位 성조가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몸을 지킨 그의 부인은 地神이 되어 일가를 수호하고 축복하는 가택신이 되었다. 날 때 부터 버림받고 저승을 두번이나 왕래한 바리공주는 부모를 병에서 구하고 죽은 영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巫祖신이 되었다.

여기에는 속된 인간이 신령과 결합하거나 신령이 되기 위하여는 시련이나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재창조되거나 성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내포되어 있다.

무속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차원을 달리한 신령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부정을 통하여 신화적 차원으로 昇華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교적 구원의 논리”는 “거룩의 변증법”이다.⁴⁴⁾ 신령과의 교제를 전문으로하는 무격이 되기 위해서는 무병을 앓아야만 했다. 신령과의 합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당은 飲酒歌舞를 통해 황홀경에 도달해야만 한다.

서사무가의 본풀이는 시련을 통해 신위가 되는 창조신화이다. 신의 본풀이는 이것을 통해 창조이전의 세계, 즉 신화적 세계로 되돌아 가고자 한다. 거기서 궁극적 실재인 신령과 합일함으로써 인생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44) 유동식, 『무격신앙과 그 구조적 특성』, 무교의 역사와 구조, 343쪽

무교의 부정과 시련을 통한 거룩화라는 변증법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기독교적인 변증법의 역동적인 동의어이다.

바울은 옛 사람의 죽음에 대한 변증법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함이니”(롬 6, 6).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못박혔다는 사실은 속된 인간의 죽음을 말한다. 속된 인간은 자기부정을 통하여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러한 자기부정의 논리는 구약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첫 세대가 여호와에 대한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준비가 결여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도록 하여 불신앙한 첫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신 1, 35-36). 그리하여 그의 2세인 이스라엘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 가도록 한다.

이스라엘의 70년 바벨론 유배생활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타락했을 때 여호와는 그들을 바벨론에 귀양보내시고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연단시킨 후 그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다(사 40, 1-2).

이러한 시련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聖化된다는 부정의 변증법에 있어서 양자 사이에 형식적으로 역동적인 동의어가 성립한다. 그러나 구조적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양자는 질적으로 다르다. 무속적 변증법은 서사무가의 본풀이에서 보듯이 부정을 통한 인간의 신격화를 말한다. 이에 대해 기독교적 변증법은 인간의 신격화가 아니라 신화의 비신화론화, 우상의 비신격화, 諸神의 평가절하를 행하면서 인간의 올바른 신관과 윤리관과 성화를 말하고 있다.

3. 샤마니즘의 변혁주의적 이해

(1) 범신론이닌 삼위일체론

- ① 무속사상의 신관은 신을 비인격적으로 보고 자연현상과 일치시키는 범신론사

상이다. 무속신앙은 천신인 하느님을 믿었다. 단군신화가 보여주는 바 같이 하느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는다. 무속신앙은 하느님을 가까이 산에 모시고는 산신이라고 했고 집에 모시고는 성주님이라고 했다. 단군이 은퇴하여 아사달의 산신이 되었다는 것도 무속신앙의 초월적 신관이 철저히 못하고 자연신 내지 범신론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느님이란 단어는 하늘에 계신 신으로 “上帝” 내지 “天帝”의 표상을 연상시킨다.天和地는 고대중국에 있어서 신표상이었다. 하늘은 상제요 땅은 황제로 표상된다.⁴⁵⁾ 상제 개념은 周 나라 때에 있어서 天 개념과 구분되지 아니했다.⁴⁶⁾ 공자는 인격화된 상제 대신에 비인격적인 天 개념을 사용했다. 이 상제개념이 商나라 때 한국으로 들어왔다.⁴⁷⁾

이러한 하늘의 경외는 周易에 있어서 땅의 동반자인 天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天은 창조적인 것이요, 地는 받는 것으로, 하늘은 陽이요 땅은 陰을 나타낸다. 양과 음은 균형되게 갈라진 원을 형성하여 太極을 이룬다. 이 태극은 거기서 우주가 생성한 최초의 원리이다.⁴⁸⁾

이에 대해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주의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원리는 그와 구분되어 있고 그의 피조물이다. 그는 하늘과 동일시 되는 분이 아니다. 하늘은 그의 피조물이다. 하늘은 그의 영광을 선포한다. 모든 자연은 그의 영광과 지혜를 나타내는 그의 창조물이다.

② 로스(John Ross)에 의하여 도입된 하나님 개념은 샤머니즘의 다원주의적 신표상을 씻어 버리고 기독교적인 삼위일체적 신 개념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나님 개념은 한국의 고유사상인 한의 원리와 한님 신앙과 구분되어야 한다.

한은 일(一)이라는 뜻이요 全一로서 만물을 포괄적으로 본 것이다. 만물을 낳게 하는 인격적 신앙의 대상으로 부르기 위해 한에 님을 붙여 「한님」이 되고 이것이

45) Consten, Das alte China, in: Grosse Kulturen der Fruezeit, Stuttgart 1958, S.6

46) Yu Lan Fung, 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Bd.1, Princeton, 1952, p.24

47) 유승국, 동양철학 논고, 서울 1974, 68쪽

48) R. Wilhelm(Hrg.), I King - Das Buch der Wandelungen, Duesseldorf 1970S. 260-

하느님, 한우님으로 되었다.⁴⁹⁾

이러한 한님사상은 한의 원리에서 나온 것으로 만물을 낳는 우주의 원리로서 도교의 太極사상과 같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이요 인격이신 창조자이시다.

성서적 하나님 사상은 한-정령주의(Hann-animism)와는 다르다. 한-정령주의는 한이 모든 의미의 영(一, 大, 天, 總, 諸, 正全, 韓 등)을 포괄한다고 본다. 한령(諸總의 영)은 한령(유일, 무한대, 전능의 영)에서 연유되고 섭리되고 지배된다고 믿는다. 靈主신앙이요 韓靈주의로 한국의 영, 혼, 얼, 마음을 가질 것을 역설한다.⁵⁰⁾

한-정령주의는 모든 영을 포괄하는 한 중심의 정령주의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다는 범재신론(panentheism)과 다를 바 없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만물의 원리가 아니라 그것의 창조자요 원리 위에 인격적으로 계시고 원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령주의처럼 특수한 민족의 통일영으로 제한된 분이 아니다. 그는 세계모든 민족정신의 원천이시나 각 민족정신 위에 뛰어나 계신다.

③ 굿에서 선신과 악신의 구별없이 제영들을 무수히 불러 들이는 무속신앙의 신관은 윤리성을 동반한 인격신관이 아니라 인간에게 액운을 가져오는 악령을 달래어 스스로 물러가게 하자는 주술적 신관의 차원에 있다.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인간에게 액운을 가져오는 신인 사단이나 귀신은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주술을 통하여 쫓거나 달래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 나간다.

복음서 기자 마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들린 자가 예수를 알아보고 두려워하면서 소리지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막 1, 23-4).

예수는 귀신을 무당처럼 달래지 않고 도리혀 꾸짖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한다.

49) 백세명, “한국사상의 유래와 장래”, 한국사상강좌 3, 고려문화사, 1960, 21쪽

50) 변종호, Hann-animism 강요, 신생관, 1970, 30쪽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막 1, 25-6).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귀신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복음서 기자 누가는 거라사에서 군대귀신들린 자에게서 군대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도 마가의 기록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귀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으며 두려워한다는 사실이다. 귀신은 예수를 만나 괴로움을 당하면서 오히려 괴롭히지 말라고 간구한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눅 8, 28).

예수는 이 군대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하여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신다(눅 8, 29-39).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베소 전도에서 악귀를 쫓아내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없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행 19, 11-12).

그러나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예수를 알고 그를 믿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누가는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나 귀신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들린 사람이 그 두사람에게 뛰어 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행 19, 13-16).

이 기록에서 우리는 귀신들은 예수와 그를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그 외 일반 마술사들이나 제사장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제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신령의 세계 아닌 하나님의 나라

① 무교에서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질적인 단절이 없다. 죽은 자는 나오지 못하는 심연으로 들어 가지 않는다. 죽은 자는 산 자와 교통한다. 죽은 자는 환영, 망령으로 산 자의 시각이나 청각에 나타난다. 산 자는 죽은 자와 함께 살고 있다.

죽는다는 것은 산 자가 자기 몸을 벗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는 분간하기 어려운 금이 있을 뿐 둘 사이에는 교통이 활발하다. 죽은 자는 산 자로 부터 대접을 받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한 푸대접을 받고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⁵¹⁾

이에 대해 기독교에서는 죽음이란 죽음의 치명성을 말한다. 죽은 자는 산 자와 교통할 수 없다. 죽은 자는 음부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산 자를 괴롭힐 수 없다. 산 자에 대한 재난과 축복은 죽은 영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 무속적 사고는 이승과 저승을 연속적으로 생각하나 기독교적 사고는 내세는 신령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믿는다.

예수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 처럼 현세와 내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놓여 있다.

② 무속종교의 내세사상에는 인과응보에 의한 심판사상이 없다. 무교의 저승에는 선인이 가야 할 극락천당이라든지 악인이 가야할 지옥이라는 것이 없다. 저승은 하나다. 무교의 내세사상이란 원한없이 저승에 가서 평안히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전부이다. 무교에서는 그러므로 다만 명복을 비는 사상만이 존재한다.⁵²⁾ 저승은 영혼이 사후에 몰려드는 영혼의 집단종착역이다. 육신이 죽은 후 육신을 떠난 영혼이 이사가듯이 장소를 옮겨 간 집단 주거지가 저승이요 내세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의 내세에는 천국과 지옥이 가장 명료히 사후의 세계로 마련되어 있다. 현세와 내세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주권자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과응

51) 장병길, “주술의 구원”, 기독교 사상, 1970년 1월호 73-74쪽

52) 유동식, 상계서, 91쪽

보에 의한 심판을 하신다. 신자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품에 안기는 것이요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다. 현세의 삶의 진정한 보상과 목적이 이루어 지는 곳이다.

③ 무교에서는 신앙이나 윤리문제가 저승에 가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저승에 간다. 저승에 못가는 망령은 생전의 악업 때문이 아니라 원한을 풀지 못해서이다. 그리하여 “해매는 영혼”, “떠돌이 넋”, “객귀”, “원귀”, “원령”이 된다. 그리하여 무당이 진오기굿을 하여 망령의 억울한 恨을 풀어주고 喪門을 씻어 주면 된다. 그리고 망령은 黃泉을 건너 저승으로 가면 그뿐이다. 원한 없이 저승에 가서 평안히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교의 내세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천국의 열쇠이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은 자는 영생에 들어가나 그렇지 않은 자는 영멸로 떨어진다.

윤리성은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도 요구되는 심판의 기준이다. 마태 복음 25장 31-46절에 예수는 최후 심판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한 자들과 행하지 아니한 자들을 양과 염소 나누듯이 나누시고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도록 하신다.

④ 하나님의 나라는 무교의 저승처럼 영혼의 구제자도 영혼의 구제기능도 없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교의 저승과는 달리 이승에 문제를 남긴 영혼을 위로해주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저승은 이승에 문제를 남기지 아니한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승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시는 원한이 없는 곳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인간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 “내가 저회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호 13, 14).

영혼의 구제라는 관념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 오고난 뒤 구체적으로 보편화되었다.⁵³⁾ 한국기독교의 전래는 이러한 무속신앙의 내세관을 구체화시키고 그 속에

53) 김열규,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 기독교 사상, 1988년 10월호 18쪽

있는 범신론적 세계관을 벗어나고 내세적인 구원관을 명료히 심어 주었다.

(3) 주술적 종교아닌 인격적 종교

① 무당들은 노래와 춤으로써 신령과 교제하고 인간의 고통을 좌우하였다. 굿을 통하여 황홀경 속으로 들어가 입신상태로 들어간다. 이 속에서 인간과 신은 거리 없이 직접 교제하고 신인합일을 이룬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처용신화(處容神話)가 표현하는 逐鬼사상이다. 고대인들의 대표적인 불안은 질병이었다. 이 질병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질병은 생리학적 현상이 아니라 악령이 범접한 때문이라고 믿었다. 역신(疫神)이 처용의 신을 범했다는 것은 역신전염의 사실을 표현한다. 처용은 노래와 춤으로써 이 역신을 쫓아내었다. “가무로써 재액을 물리치고 축복을 초래한다는 것이 무교의 기본구조이다”.⁵⁴⁾

무교의 세계에서는 우연이란 없고 자연적 원인이란 없다. 모든 재앙은 외부에서 작용한 초자연적인 영의 힘, 즉 살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질병의 치료는 무꾸리(점치는 것)와 푸닥거리이다. 여기에 북, 춤, 노래, 거울, 방울, 부채등이 사용된다. 치료는 침입한 살보다 힘이 더 강한 신령의 힘을 빌려 내 쫓는다.⁵⁵⁾

이에 대해서 기독교는 자연적 원인을 인정한다. 모든 질병이나 액운이 역신에 의하여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현상이요, 인간의 죄나 실수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으로 본다. 질병의 치유도 주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학을 통해서 하며 신유의 경우에는 악령을 쫓아 내거나 물러가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기독교의 치유는 인간의 죄 사함과 관련이 있다. 예수는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막 2, 5)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막 2, 11)라는 권세있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신다.

54) 유동식, “용신신앙의 변용적 전개와 무격신앙의 형성”,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1985, 연세대학교, 105쪽

55) 장병길, “주술의 구원”, 기독교 사상, 1970년 1월호 73쪽

그러므로 기독교적 치유는 무속적 치유를 윤리화시키며 주술적 방법을 말씀의 방법으로 변혁시킨다.

온역과 재앙은 인간의 사회적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온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여호와와 함께 한 날에 범죄한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심판이 질병과 사회적 재난과 전쟁으로 다가온다고 선포하고 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누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슥 14, 12-13)

② 무교는 악령을 정면으로 대결하여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잘 대접하여 스스로 물러가게 한다. 예컨대 이조 말엽 유행한 痘神을 그 위력과 유행성 때문에 두려워서 손님이라고 높여서 부르고 극진히 모셨다. 여기서도 신령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 하지마는 주술적 인격성이 강하다.⁵⁶⁾ 두려움이 동반될 뿐 만아니라 스스로 물러가도록 하기위한 방편이다. 이 방편은 기독교적으로 인간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극진히 모시는 인격적인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예수는 그의 치유에 있어서 중풍병이 전혀 악령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치유에 있어서도 악령을 쫓아냄이 없고 단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막 1, 31). 그의 권능으로써 예수는 질병을 치유하셨다. 예수는 병자는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막 1, 34).

마가복음 1장 23-28절에서 복음서 기자 마가는 귀신의 실재와 인격성을 언급하고 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가 들어가 가르칠 때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예수를 두렵게 알고 심히 괴로워하여 소리지른다. 예수는 귀신을 꾸짖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신다. 귀신은 예수의 꾸짖음에 그대로 복종하여 쫓겨나간다.

56)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의 구조, 303쪽

여기서 성서적 귀신 쫓아냄이란 주술적 행위로 인한 악령의 접대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아들의 권세요, 영적 질서세움에 기인한다. 귀신은 모든 신들의 총수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있다.

(4) 현세적 기복 영성과 세계내적 영성

① 무교적 영성은 주술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조의 산천제의식을 예로 본다면 진설에 있어서 “제사날에는 산천神座를壇 위의 북방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祝版을神位의 오른 편에 올려 놓는다”. 행례에 있어서 獻官들이 神位에게 헌작하고 福酒를 떠서 음복하여 신령과 교통하고자 했다.

여기서 신령과의 교제는 축판을 신위에 올려놓고 술을 헌납하고 마시므로써 신령과 교통하고 복을 비는 것이다. 신령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술잔을 헌납하고 마시는 행위다.

곳에서도 마찬가지로다. 첫째는 신령을 불러낸다. 둘째는 강림한 신령을 즐겁게 하는 무악과 춤이다. 세째는 공수(신탁)을 주는 과정이다. 가무에서 무당은 탈아입신상태를 경험한다. 그리하여 신의 축복의 약속을 전한다. 그것이 곳의 목적이다. 이러한 영성의 목적은 인생의 문제인 가난, 병사, 가뭄, 횡사등 액운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이러한 기복영성은 무당을 통한 신령과의 간접적인 관계요, 재물을 통한 관계이지 전혀 신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다. 제례드리는 자의 인격적 변화는 전혀 없다. 무당 곳의 특색은 신령을 초청해서 그의 뜻을 듣고 재화초복하자는 데 있다. 신령에게 드리는 인간의 헌신은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삶을 신에게 헌신한다. 삶의 헌신은 신앞에서의 거룩한 삶이요, 신의 뜻의 이행이다.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 24). 바울은 로마교인들을 향하여 삶의 성화와 헌신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 1). 무속신앙에서 신령과 인간 사이의 연결자는 춤을 추어 신령을 즐겁게하는 무당이다. 그러나 기독

교에서는 신과 교체하는 자는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에게 헌신하는 본인자신이다. 목사는 무당이 아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목사는 영매사가 아니라 신자를 하나님과 교체하도록 보조해주는 상담자일 뿐이다. 신자 자신이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해야한다.

② 현세적 기복영성은 저승에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한국인이 죽은 자를 위하여 부르는 상두소리는 저승으로 떠나는 넋을 이별하는 노래다. 이 노래는 넋을 달래거나 위로하는 데 치중되어 있지 않고 압도적으로 영영 돌아 올 수 없는 넋에 대한 이별의 정을 읊고 슬픔에 자기는 것이다.

“왜 떠나느냐 어찌자고 떠나느냐

인제 가면 언제 오려느냐 어떻게 다시 만나겠느냐”

상두소리는 저승은 가서는 안될 곳으로 노래한다. 저승은 가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는 곳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이승의 문제는 이승에서”라는 사고가 한국인을 지배하였다. 이것이 탈내세적이면서 현실적인 한국인의 종교 심성을 가꾸어 왔다. 그리하여 육체위주 현실위주의 신앙심이 가꾸어 졌다.⁵⁷⁾

이에 대해 기독교 신앙은 내세에 절대자 하나님의 상급과 영원한 위로가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현세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을 저울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인 공리나 불의에 대한 타협이나 영합이 있을 수 없다. 다가오는 내세의 상급은 현세의 삶에 대한 평가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산다. 이 세속을 떠나지 않고 이 세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한다. 이것이 칼빈주의적 세계내적 경건이다.

변혁주의 착상은 이러한 현세지향적 기복영성을 세계내적인 영성으로 변혁시켜야한다.

57) 김열규,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 19-21쪽

(5) 혼합주의 아닌 윤리적 변혁정신

① 무속신앙에서는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한 집착은 아주 강하나 이 재물은 신령의 도움으로 운수로서 다가오는 것이지 재물을 모으기 위한 윤리성이 강조되지 않는다. 무속신앙은 인간이 오래살고 인생이 결혼하여 자식얻는 통과의례를 말하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방법에 관하여서는 말하지 않는다.

인생의 죄와 업보는 죽어서 저승에서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굿 가운데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적인 줄거리를 말할 뿐 무속신앙의 깊은 의식구조는 아니다. 무속신앙은 죽음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인생의 삶의 가치에 대한 의식은 약하다.

무교의 가치관은 多多益善이라는 양적인 것이다. “무쇠 목숨에 돌끈을 달아 천년 만년 살게 해 달라”는 것이 무축의 핵심이다. 복 중의 복은 壽福이다. 財福은 수복을 장식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래오래 풍성한 삶을 누리야만 한다. 그러므로 무교에서는 “제 命에 죽지못하는 횡사나 제대로 못먹는 가난이야말로 죄에 해당한다.”⁵⁸⁾ 무슨 짓을 하든 오래살고 많이 가지고 볼 것이 무교의 가치관이었다.

무교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살자는 현세적 생존가치만을 지고의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현세적 공리주의의 가치체계에 사로 잡혀있다. 신령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이웃인간 관계나 사회관계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가족이나 마을이나 사회는 자기의 확대나 연장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은 사는 과정과 내용을 중요시하고 결과보다도 동기와 방법을 중요시한다.

기독교의 가치관은 결단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다. 다다익선이 아니라 安貧樂主이다. 이 사상은 구약 선지자 하박국의 메세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뽕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3, 17-8).

58) 유동식, 상계서, 92쪽

구약적 가치관도 재물의 양적인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현세적인 생존의 가치관이 우선되지 않는다. 장수나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얻는 방법은 정당한 절차를 통한 것이어야 한다. 진리와 양심,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신자는 불의와 타협하여 생존을 연장하는 것은 진정한 영적 삶의 포기요, 지고한 가치관의 포기를 말한다. 하나님의 뜻일 때 신자는 목숨을 포기할 수 있다.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순교이며 지고한 가치의 세계를 향한 결단이다. 기독교 신앙은 따라서 눈 앞에 전개되는 공리주의적 행복이나 현세적 축복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 족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신자의 장래 영광과 보이지 않는 소망에 관하여 말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 18).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롬 8, 24-25)

② 무교의식은 자기자신까지 객관화하고 자기에 대한 윤리적이고 사회적 비판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및 사회의 관념이 결여되어 있다.

무속의 세계에서는 선과 악, 성과 속의 대립이 없다. 양자 사이에는 계속적인 단절이 없고 조금도 성질을 바꾸지 않고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진다. “淨과 함께 不淨이 만들어 지고 부정과 함께 정이 만들어 진다.”⁵⁹⁾

이에 대해 기독교신앙은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 나눈다. 성과 속의 대립이 분명하다. 악에 속한 것은 부정하며 선에 속한 것은 정하다. 성과 속이 결단코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인간의 윤리와 양심과 관련하여 선과 악, 성과 속의 구분이 나타난다. 악과 속이란 인간의 빛나간 양심과 윤리의 타락행위에서 빛어진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당시 편만한 개인의 불의와 사회의 부패를 고발하고 있

59) 장병길, “주술의 구원”, 기독교 사상 1970년 1월호 73쪽

다.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발하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찢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믹 7, 2-4).

(6) 자연의 맹목적 의지아닌 인격적 하나님의 역사섭리

① 무교는 역사의식을 결여하고 있다. 그것은 음주가무를 통하여 신령과의 합일을 이루고자 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다. 그리하여 역사 이전의 원초적인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 창조이전의 세계는 춤 속에서 노동과 유희가, 낮과 밤이, 삶과 죽음이 하나의 태극을 이루는 합일의 경지이다. 여기서 신인융합의 황홀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무교는 역사발전의식을 결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격적 신이 객관적으로 설정한 초월적 가치의 세계가 없다. 또한 인간사회발전에 필요한 윤리적 가치와 역사참여가 결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섭리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신이 설정한 객관적인 초월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요엘 선지자는 역사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알리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을 2 11)

② 무속에서의 공수(신탁)는 비인격적인 신령의 은혜에 대하여 제사드리는 자가 배은망덕했다는 책망을 하나 신령은 계속하여 축복해줄 것을 약속한다. 여기서 무교는 인간과 초월적 신과의 관계가 삶의 성화없는 오로지 신령의 축복을 받기위해 곳으로 신령을 즐겁게 해주는 데 만 주력한다. 여기서 무교는 종교가 가져야할 중요한 요소인 윤리와 양심과 성화를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윤리의 각성과 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찌어다”(을 2, 13)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아모스 선지자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 하

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너희는 살기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찌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암 5, 14).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암 5, 24).

미가 선지는 공의와 인자의 행함이 열납되는 제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 8).

(7) 신화적인 낙천주의와 변혁적인 현실주의

무교의 낙천주의는 신화적인 낙천주의다. 현실을 떠나 무릉도원 속에 있는 낙천주의다. 그것은 다음 노래가락에서 나타난다.

“진주로 얼그신 독에 어백미로 술을 비져 만구름 차일 아래
모란 병풍 둘러치고 동자야 잔가득 부어라 매일 취게”

무교의 낙천주의는 신령의 和誼에 의하여 주도된다.

군웅노래가락은 다음같이 노래한다.

“제석삼불 여시는 길 은하수로 다리놓소……
성주왕신 여시는 길 가야고로 다리놓소……
성주대도감 화의요나 마누라 성주님 화의를 화의라고⁶⁰⁾

여기서 낙천은 제석, 성주의 은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무교의 낙천주의는 굿거리를 통하여 강림하는 신령과의 합일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죄인의 변화나 성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낙천주의는 제레드리는 자의 실존의 핵심 속에 실제적으로 야기되는 사건이 아니라 무당의 입술을 통하여 신탁되는 비현실적 약속이다. 제레드리는 자의 윤리적 변화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적 낙천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현실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 새현실의 참여하므로써 제레드리는 자의 실존의 변화를 말한다.

60) 赤松, 秋葉, 상계서, 99쪽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와 시대가 이루어졌다. 저주와 심판의 시대가 지나고 은혜와 용서의 시대가 도래했다. 바울은 다음같이 말한다.

“한사람의 범 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롬 5, 17).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은혜와 생명이 이 세상에 왔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실존의 변혁을 경험하며 기독교적 낙천주의를 경험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신자의 실존적 새창조를 언급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 17).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 16).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 17).

실존적 새 창조는 신화적 세계 속으로 침잠함으로써 이 세상사에 대한 망각이나 도피가 아니라 죄인이 옛 관습과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고 용서함을 받고 새 생활을 영위하는 의인과 성화로서 이루어진다.

(8) 신화적 구원과 역사적 구원

① 무속적 신화의 제창은 세속적 역사에서 벗어나 신령의 원초적인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 신화적 세계는 사실적 세계가 아니라 신령의 세계요 영적이고 초자연적 세계요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종교적 환상의 세계이다. 음주가무에 의한 탈아경 속에서 신인합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역사의 속박에서 해방하여 신화적 원초적인 세계로 되돌아 가게 한다. “여기는 신과 인간과 자연이 간격없이 결합되는 세계이다. 따라서 신과 인간 또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분리대립에서 오는 모든 긴장으로 부터 해방된다”⁶¹⁾

61) 유동식, “무격신앙과 그 구조적 특성”, 상계서, 344쪽

무속 종교는 우주와 우주의 리듬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역사”란 신의 창조요 초자연적 존재들이나 신화적 영웅들에 의해 조직화된다. 이러한 역사는 신화에 의해 보존되고 전승되는 “신성한 역사”(sacred history)이다. 이 역사는 “시간의 시초에 일어났던 경악적인 사건들을 주기적으로 재활성화하는 축제의 모델로서 신화가 기능하는 의미에 있어서 무한히 되풀이 된다.”⁶²⁾

이러한 무속적 신화에는 세속적 시간, 지속, 역사가 중지하고 그것은 신화적 사건이 야기하는 시대 속으로 이입하게 된다.⁶³⁾

이에 대하여 기독교는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난다. 여기서 역사는 제거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역사는 그 중대한 의미를 수행한다.

성서적 기독교적 세계는 되풀이 되지 않고 일회적이다. 그것은 시간과 역사의 선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박국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를 대언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단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옹하리라”(합 2, 3).

하나님의 임재는 주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에 기인한다. 이사야 선지는 배은망득하는 유대역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사 1, 2).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역사적 사건과 결부되어 이루어진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합 1, 6).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 앗수르를 멸망시키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공의가 집행하지 않는 폐역한 그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하신다.

역사의 구속은 결단코 역사를 떠나 신화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역사의 불의와 부패를 징책하시고 심판하신다.

62) Mircea Eliade,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trans. by Willard R. Tras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XiV

63) M. Eliade, *The Myth of the Etrernal Return*, p.35

신화가 생성된 시초로 되돌아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만나고 그의 말씀에 의하여 변화를 받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소명을 받는 것이 구원이요 소명이다.

이사야는 여호와와 신현 속에서 무속종교처럼 신인합일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부정과 죄를 발견하면서 실존의 위협을 체험한다.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사 6, 5).

하나님의 천사가 핀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그의 죄를 사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대었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사 6, 6-7).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역사의 구속을 향해 일군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 8).

이러한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 신현의 체험 — 죄와 허물의 체험과 실존의 위기경험 — 죄와 허물의 용서받음 — 역사를 향한 신의 소명에 대한 응답」이라는 성서적 신현의 구조는 「굿거리 — 신령임재 — 신인합일 — 신화적 원천으로 복귀 — 문제해결」이라는 무속적 신현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후자의 구조는 전자의 구조로 변형되어야 한다.

② 주술적 구원은 외부적인 우환에 대한 제거이다. 이 제거는 굿에서의 푸닥거리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여기서 죄란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이나 불순종이 아니고 외부로 부터 입은 피해이다. 우환의 원인은 침입할 곳과 연결된다. 대문, 뒷간, 대들보 등이 우환의 침입구로 판단된다. 때로는 喪家에 다녀온 것이라든지 訃告狀이 대문에 꽂혀 있다든지 하는 것에서 찾는다.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한 피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⁶⁴⁾ 주술적 구원은 굿의 푸닥거리를 통한 살풀이이다.

여기서는 강한 힘을 이용하여 약한 영적 힘을 억압한다. 이 강제적 행위가 주술

64) 장병길, “呪術의 救援”, 기독교 사상 1970년 1월호 69~74쪽

이다. 구원은 죽은 후에 있지 않고 현세에 있다. 현세 살풀이를 하고 우환이 제거 되면 구원이다. 따라서 무속종교인들의 구원관은 공리적이고 현세적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적 구원은 내부 속에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부정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로 부터 온다. 예수는 떡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다는 바리새인의 질책에 대하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마 15, 11)라고 교훈하신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설물로 나와 청소되지마는 입으로 나오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거와 꾀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마 15, 19-20).

기독교적 不淨이란 주술적 부정이 아니라 윤리적 부정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증거와 꾀방은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것들이다. 이러한 부정의 정화는 마음의 새롭게함이지 주술적인 굿거리가 아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새사람으로 지어져야 할 것을 역설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엡 4, 22-23).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 부터 용서함을 받는 의인의 구원이요 성화되는 구원이지 살풀이로 부터 해방되는 공리적이고 현세적인 행운이 아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오히려 현실의 공리적인 측면을 부정한다. 이것은 야고보의 현실지향적인 부자들에 대한 경고에서 나타난다.

“들으라, 너희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를 보리라 하는자들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 4, 13-14).

여기서 야고보는 장사자채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삶의 원천인 하나님을 모르고 현세적인 영리에 따라서 사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다.

기독교의 행복과 가치는 재물의 다다익선에 있지 않고 그 재물취득의 과정과 그것을 사용하는 행위에 달려있다. 야고보는 다시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부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약 5, 1-2).

맺는말

(1) 한국 기독교의 방향—포용적 변혁주의 기독교

무속신앙은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을 이루어 왔다. 한국인들은 기독교도 이러한 무속적인 의식으로써 수용하였다. 그러므로 근본주의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 같이 무속종교와 그 전통을 무조건 우상숭배라고 배타시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것은 기독교를 받아 들이는 우리 한국인의 종교적 선이해를 백지화시키는 것이요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속적 사고방식은 수천년동안 우리의 의식과 생활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미 관행화된 의식구조를 정신병리적인 분석없이 무조건 목살할 수 없다. 무속신앙은 기독교 선교에 장애가 되었기 보다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한국인들에게 알려주는 접촉점이 되었다.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이 된 무속의식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토양이 되었다.⁶⁵⁾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무속의식의 구조를 분석하여 그것이 기독교적 의식과 어떻게 유사하며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규명해야한다. 그러함으로써 우리는 무교적 전통을 우리의 전통종교적 유산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오늘날 기독교적 정신으로 변형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변혁적 종교신학이 필요하다.

65) 유동식, “제 1장 한국인의 심성을 결정한 무교”, 한국종교와 기독교, 1965, 대한 기독교서회, 15~37쪽, 서광선, “한국의 무속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의 새인식, 1985, 대한기독교서회, 209~216쪽

한국기독교 안에 무속적인 신, 타계적인 신앙, 제례위주의 신앙, 기복신앙, 윤리 의식의 결여, 역사의식의 결여, 종교적 낙천주의, 개인구원의 협착성 등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러한 무속적인 잔재들을 종교신학적으로 발굴하여 성서적 기독교사상으로 변혁시켜야 한다. 이 변혁주의적 이해가 철저히 수행되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는 여태까지의 불교, 도교, 유교 처럼 무속종교와 혼합되어 성서적 기독교의 본래적 정신과 사상에서 벗어난 혼합주의 기독교가 되어 버릴 것이다.

필자 약력

서울대 철학과 졸업, 동 대학원 수학,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 철학박사(74년), 독일 마아르부르그 대학 수학, 하이델베르그대학 신학박사(84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연구교수(85년), 89년 烈巖 학술상 수상(저서:하이데거에서 리피르까지), 93년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가 선정한 기독교문화출판 최우수저작상수상(저서:한국기독교문화신학, 성광문화사, 1992),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교수(90년), 영국 런던 대학 신학부, 스코트란드 글라스고, 아버딘, 에딘버러 대학 신학부, 화란 우트레히트 대학, 미국 샌프란시스코,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트 신학대학원, 캐나다 토론토 기독교학 대학원 등지에서 초빙강연, 미국 예일 대학 연구교수(91년), 송실대학교 교목실장(현), 송실대학교 교수 및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장

필자 저서

Husserl und Natorp (Dr. phil. 논문, 하이델베르그, 74년)

Phaenomenologie und Theologie(Dr. theol. 논문, 하이델베르그, 84년)

기독교신앙개설(형설출판사, 1982, 1992(5판)),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대한기독교서회, 1982, 1991(11판)),

현대신학의 전망(대한기독교서회, 1984, 1992(5판)),

하이데거에서 리피르까지(박영사, 1987, 1990(2판)),

현대신학과 개혁신학(대학촌, 1990),

평화통일과 한국기독교(풍만, 1990)

한국기독교문화신학(성광문화사, 1992)

필자 편저

기독교와 문화(풍만, 1987), 한국기독교와 예술(풍만, 1987),

기독교와 마르크시즘(풍만, 1988), 한국기독교와 신앙(풍만, 1988),

한국기독교와 기독지성인(풍만, 1987), 루터신학 개요(예장총회출판국, 1991)

Reformed Theology Today(Poong Man Press, 1989),

Christianity facing 21st Century(Soong Sil Univerity Press, 1990)

창조적 목회와 성경해석(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93)